

News

은행, 기업투자 유도한다... 'RWA 100%' 하향 확대

서울경제

<https://zrr.kr/jTQrZL>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장사를 지킨 지 나흘 만인 28일 금융 당국은 전 업권 협회장을 소집해 혁신성장 금융 활성화 구상을 공유

당국은 금융사가 자본 투자 시 부여받는 400%의 위험 가중치를 100%로 낮추기 위해 특례조항부터 정비할 예정

'100조→150조+α' 키우는 국민성장펀드...생산적 금융 대전환

데일리

<https://zrr.kr/5vIBfE>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정부는 모펀드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10% 이상 우선 분담하고, 민간 금융회사도 차순위로 10% 정도를 부담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

"돈 굴릴 곳 없네" 예금금리 연 2% 뚫... 지방은행 연 1%도 등장

머니S

<https://zrr.kr/28mmcq>

4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28일 기준 연 2.10~2.25%으로,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시장금리 하락

은행권이 이달 들어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더 내리면서 가계예대금리차가 되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

금감원,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칼뼀다'...소금융권 현장점검

파이낸셜포스트

<https://zrr.kr/Fo4bUJ>

금융감독원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관련 현장점검에 착수

소상공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

"국장이 이렇게 뜨거웠나"...코인 떠난 개미들, 빗까지 내서 증시로

머니투데이

<https://zrr.kr/3D6WEa>

국내 증시의 7월 평균 거래대금은 18조7890억원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13조2621억원, 13조9628억원 수준에서 5월(20조1547억원), 6월(19조6301억원) 들어 대폭 증가

하반기 관세 불확실성 완화 등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

'실권주 떠안을라...' 멈춰선 증권사 공모 조달시장

머니투데이

<https://zrr.kr/nv46Kq>

증권사들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공모 메자닌 업무 수입에 소극적인 태도

시장 상황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주관업무에서 최근 대규모 실권으로 손실을 겪었기 때문으로, 금융당국의 입장도 보수적이라 시장에서 당분간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

금융당국, 손해율도 표준화 추진... 위험담보 '보험료인상·판매전략' 수시로 바뀔 판

보험저널

<https://zrr.kr/OcTXAg>

금융당국이 '표준손해율(담보별 손해율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 중

금감원이 담보별 손해율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하거나, 타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손해율 가정을 문제 삼는 사례가 늘면서 자율적인 손해율 설정이 제한받는 분위기

금감원, ALM 관리 못하는 보험사 '장기상품' 판매 제동

대한금융신문

<https://zrr.kr/3fdeIX>

금융감독원이 자산·부채 듀레이션(실질 만기)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에 장기보험 판매를 제한하는 강수를 둔 모습

또 듀레이션 갭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해 올해 6월 말 기준보다 9월, 12월 말에 '유의적'으로 악화된 경우 개별적으로 판매 전략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김은혜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정법 대표발의...ICO 허용 눈길

이데일리

<https://zrr.kr/AjBha3>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특히 이 제정안은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가상자산 공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평가

페이팔, 미국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크로스 보더 결제 수수료 절감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DU3RVG>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이 미국 상인들이 100여 종 암호화폐를 결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

페이팔은 이 서비스에 기존 국제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90% 저렴한 0.99%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